

46. 나는 너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지만 나는 쉽게 잡히지 않아.

2015.04.13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주님의 눈은 제가 녹아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다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후에 저는 주님의 사랑에 매우 도취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기회를 잡고 완전히 집에서 편안하게 오랫동안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늘밤 저는 그 두려움을 무시하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주님은 저를 안팎으로 알고 계시고, 모든 저의 잘못, 저의 생각, 저의 결점과 악을 알고계시는데 제가 주님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그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볼때 저는 주님의 품이 너무 좋고, 너무 자연스럽게, 완전히 편안하고 안전하여 저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모든 것에서 거룩하신 분에게서 숨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저와 저의 행동을 알고계시고, 주님도 저의 품 안에서 편안해하시고 안전해하셨어요. 와, 그것은 저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거나 긴장하지 않았고, 저를 알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의 위로만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나를 너의 반쪽, 진정한 너의 남편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때를.

(클레어) 저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단순히 행운의 과자를 뽑는 슬롯머신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받는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요. 그러니 만약 요한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내가 지금 말하기를 원해?

(클레어) 오, 네 주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밤 너가 발견한 것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야. 모든 길은 집으로 통해. 바로 여기로.

(클레어)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리키셨어요.

(예수님) 그 공허함, 너희들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공허함, 휴거에 대한 강렬한 열망.. 너희들 모두는 이 단순한 일대일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죽을때 심지어 더욱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그때에 나는 매우 조용하지만, 그 외에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진정한 자신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편안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너희들의 삶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해.

내가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 너희들의 고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듣거나 보지 못하는 희생의 때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자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공허함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클레어와 내가 가진 이 관계를 그토록 갈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종교가 나에게 대한 이 소중하고 귀중한 지식을 너희들에게서 빼앗아갔다는 사실이 너희들을 깨우기 시작했어. 그래, 지금은 신부들이 신랑에게 와서 거룩한 결혼식 안에서 함께 결혼할 때야. 너무나 거룩해서 다른 사람이 너희들과 나 사이를 끼어들 수 없어. 이곳은 성스럽고 오직 너희들과 나만을 위한 공간이야.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하였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두려움때문에 주저하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인 나를 두려워하는 것, 심판에 대해 나를 두려워하는 것,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다가오려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완전함을 원한다는 두려움으로.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없이는 절대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할 거야. 그것은 너희들에게 불가능해. 그래서 너희들은 악마들의 속임수인 이 종교적인 아이디어들때문에 나를 피하고, 회피하면서 너희들의 평생을 보내. 나는 지금 너희들 모두에게 말해: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너희들이 나와 거리를 두는 유일한 이유야.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뒤에 숨으려고 벽을 쌓은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보여?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여? 너희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았을수록 너희들은 나를 더 두려워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았던 적이 없어.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기 전에 전제조건이 없는 나의 사랑을 절대로 알지 못했어. 너희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너희들은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느꼈어. 그리고 너희들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꼈어. 보여? 적들은 너희들이 친밀함을 두려워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어.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야.

고통, 실망, 실패, 그리고 “나는 충분하게 좋지 않아.”라는 태도로 다시 돌아가. 나는 너희들이 무엇이든 나에게서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갈때 심지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어. 만약 너희들이 그것들을 알았다라면 너희들은 겁에 질릴 것이고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여겨서 나에게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그 종교적인 영이 “너는 합당하지 않아. 너가 누구라고 생각해? 너는 죄인이야. 10분전에 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봐. 그분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감히 그분과 이야기할 수 없어. 너는 어리석고 속은거야.”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의 앞에 손가락을 흔드는것을 무시하고 너희들 자신을 극복하고 나에게 와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것은 정말로 종교의 영이야.

(클레어) 주님, 저의 자녀..

(예수님) 제이든?

(클레어) 네.

(예수님) 제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계속해서 거부함으로써 너에게 그러한 두려움을 주었어. 나는 너가 누구인지 알고, 너가 어디에서 서고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온전함으로 사랑하고 너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 너는 나를 위해 충분하게 좋아질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좋지 않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이름은 따뜻하고, 멋지고, 위로가되는 사랑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너의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종교는 나와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빼앗아갔어.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렀을때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었어. 나는 그들과 걷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먹고, 우리는 별들 아래에서 함께 잤어.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진짜이고 싶은 방식으로 나는 그들에게 진짜였어. 종교는 벽, 장애물, 조건을 세웠어. 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어. 나는 아담과 이브와 했던 것처럼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 나는 항상 우정을 원했어. 나는 지구에 살았던 사람 중 가장 오해를 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빼앗고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사람들이 괴물들이야: 증오, 비통함, 분노로 가득차 있고, 그것들을 나에게 투영하였어. 나의 본성은 다정하고, 친절하고, 단순하고, 함께 하기 쉬운 것이야.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의 죄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살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이야.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어. 만약 그들이 내가 원하는대로 살았다면 나는 절대로 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필요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적이 있어.. 지구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악하고, 역겹고, 불쾌하고, 소름끼치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과 운명을 같이할때, 나의 아버지는 반드시 앞으로 나서서 불의를 멈추게하는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야해. 그것이 지금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거야: 심판. 하지만 이것은 나의 본성도 나의 아버지의 본성도 아니야. 우리는 부드럽고 온유하며 다정하지만, 우리가 죄와 악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였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보다시피 나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적들이 나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나에게 와라. 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희들의 영혼에 안식을 가져다줄 거야. 우리 사이에 스크린과 장벽을 세우는 것을 멈춰라. 부끄러움 없이 나의 눈을 바라보고 오직 너희들만을 위해 빛나는 사랑을 보라.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어라. 내가 말했던 내가 나 라는 것을 신뢰해라.

클레어, 자야되?

(클레어) 네 주님, 저는 정말 졸려요.

(예수님) 내 안에서 안식해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할 거야.

(클레어) 감사해요 주님,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너는 나의 아내야. 내가 너의 필요함을 신경쓰지 않겠어?

(클레어) 1시간이 지났어요..

와, 기분이 나아졌어요. 저는 낮잠을 잔 후에 다시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여기에 다시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왜 아무때나 이렇게 앉아서 주님과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너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것은 내가 아니라 너가 우리의 관계에 제한을 둔 거야. 나는 우리가 함께 찬양시간을 먼저 가질 때를 좋아해.

(클레어) 오 주님, 저는 오늘밤 그 찬양에서 심지어 나오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으세요.

(예수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장소를 채우고 가르랑거림(고양이가 특히 기분이 좋아서)을 유지하기 위해 너는 매일, 항상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클레어) 주님이 가르랑거린다는 말씀을 하신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것은 정말 완~벽한 단어이지 않아?

(클레어) 지금 주님은 바보같이 행동하고 계셔서 사람들은 제가 대화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너는?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클레어) 주님은 제가 가졌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편안한 친구예요. 그리고 신이기도 하구요.

(예수님) 나는 그것을 나의 신부로부터의 입맞춤으로 받을게.

(클레어) 주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물론이지. 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기를 너의 평생동안 기다렸어. 머지 않아서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영혼은 복이 있어. 너는 무지와 외로움으로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어. 너가 여전히 매우 어렸을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라면 더 좋았을텐데.

(클레어) 네 주님, 그럴 수 있었더라면요.. 휴..

(예수님) 그래서 내가 나의 소중한 신부들을 너에게 데리고 온거야. 그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외로움은 없어. 삶에서 결정을 할때 더 이상의 외로움은 없어. 나는 너희들의 오른편, 너희들의 옆에 있으며 너희들이 나에게 요청할때마다 항상 나는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이 관계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은 주위산만함과 일이야. 이것들은 사탄이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너희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도구들이야. 사탄은 너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것을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 그것은 너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되어져.

(클레어) 오 네.. 그 사람은 애니멀 호더(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로 4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집앞으로 나와 이 집에서 해야할 다른 일들을 하러 돌아다니는 83세 노인일 것이예요. (자기자신.)

(예수님) 그래, 너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나에게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너의 어머니의 본성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잃기전에 너를 멈추게 할 거야. 하지만 과거에 이것은 정확하게 사탄이 너를 내게서 훔쳐간 방법이야. 그리고 나는 울었어 클레어. 나는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고 또 울었어.

(클레어) 저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눈물이 제 눈에서 나왔어요.
오 주님 그리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 그래. 나의 신부들아, 거기에는 대가가 있어.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은 생활필수품으로만 살게되고, 바깥에서의 아주 작은 즐거움만 얻게 될 거야. 이것이 너희들이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대가야. 내가 너희들을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인터넷 서핑을 하는 시간에 빠지면 나는 너희들의 호기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게 할 거야.

너희들이 허영심으로 거울 앞에 서있을때 혹은 더 나아보이기 위해 쇼핑준비를 할때 나는 너희들에게 죄의식을 가지게 할 거야.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낼때, 두 사람의 영적 성장과 관련이 없는 친구와의 점심식사도 나는 죄의식을 가지게 할 거야. 나는 주방에서, 정원에서 그리고 청소하려는 충동으로 너희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나는 죄의식을 가지게 할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안내서야. 만약 너희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에서 평화와 기쁨을 느낀다면, 내가 그 활동에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너희들의 옆에서 지속적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나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하는 것을 알아.. 하지만..” 이러한 느낌이 든다면 나는 너희들의 옆에서 너희들의 동행을 그리워하고, 만약 너희들이 나를 계속 미루면 나는 울 거야. 너희들은 나의 눈물을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너희들의 내면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거야. 그 끔찍하게 잘못된 느낌은 너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이야.

너희들도 보다시피 나는 쉽게 잡히지 않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저는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를 원해요.” 정말로 이렇다면 너희들은 많은 희생들을 해야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 간소화해야해. 너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줘라.

(클레어) 예를 들어서 저의 보통의 하루는 푸드뱅크를 진행하기위해 음식을 가져오고, 어쩌다가 가까운 가게에 가고, 처방전을 받아오고,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 뒤의 목초지에서 산책시키고, 저녁식사, 설거지, 그리고 기본적인 일상의 청소를 해요. 식사시간에 남편과 시간을 보내거나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약 4시간정도가 되요.

그리고 저녁에 아마도 4~6시간동안 여러분 모두와 저희의 조력자들의 편지에 답장을 하고, 또 다른 4~5시간동안 찬양을 하고 주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하고 인터넷에 올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의 몸이 쉴 수 있도록 약 45분정도씩 2번 낮잠을 자요.

휴거가 다가오면서 저는 옷을 수선하는것, 중고품 가게에서 옷을 사는것, 제 남편과 영화를 보는 것, 더 많은 운동을 하는것,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요리하는 것들을 즐겼어요. 저는 빵을 굽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 그래서 너의 삶이 지난 몇개월 동안 상당히 바뀌었어?

(클레어) 오 네, 주님, 감사해요. 저는 저의 일과에 매우 만족해요. 희생이 있었지만 그 어느것도 주님과 함께 있는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달콤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들이 보다시피 너희들의 삶을 아직 간소화하지 않았다면 희생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가르침을 너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휴거 후에 남겨질 사람들에게도 줘.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관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도록. 너희들은 이 메시지를 뒤에 남겨두고 간것을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클레어가 앞서 말한것과, 내가 그녀에게 경고한것처럼..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는 너희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하여 너희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으로 천천히 너희들에게서 생명을 빨아들일 수 있는 사탄에게 가장 완벽한 때야. 그러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처리하냐고? 쉬워. 절대적이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루의 기도를 놓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야.

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를 망치는 것이고 하루에 단 한번으로 시작되. 다음 날에 또 다른 일이 너희들의 기도시간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날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마치 바닷물처럼 휩쓸려나가게되..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집으로부터 멀어지게되.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희생들이 어떤것인지를 보여줘.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여기고 너희들의 삶을 질서있게 정리한다면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하나님의 질서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만약 너희들이 매일 노력한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뒤로 미끄러질때, 클레어가 필연적으로 하는 것처럼,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나는 내일 너의 하루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

(클레어) 주님, 저는 이것이 들려요.. “일을 해야하거나 학교에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나는 쉬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시한번 말하지만 ‘얼마나’ 이러한 관계를 원하는가야. 얼마나 원해서 너희들의 생활방식을 바꿔 너희들이 적은 청구서를 가지거나 비교적 전혀 없게할 수 있어? 너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직업이 진정으로 너희들의 삶에 대한 나의 뜻이야? 나의 완벽한 뜻이야? 아니면 아프리카의 덩불 속에서 나에게 영혼들을 데려오는 것이 더 행복해? 너희들의 일은 나에게 대한 너희들의 완전한 헌신과 사랑을 반영해? 아니면 너희들은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살고 있어?

너희들도 보다시피 여기에는 쉬운 답이 없어. 만약 너희들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거야. 너희들을 무책임하고 패배자로 보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대답을 하거나 혹은 대답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있어?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 어느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아니면 너희들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멀어지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지지를 잃고 내면의 상처를 입을 의향이 있어? 여기에는 쉬운 답이 없어.

(클레어) 저는 지금 이것이 들려요.. “하지만 저는 결혼했는데요!”

(예수님) 만약 너희들이 똑같은 멍에를 메고 있다면 그것은 장애가 되지 않을 거야.

(시청자들이 말할 것 같은 이의제기) “저는 좋은 직장과 막대한 수익이 있고, 저는 이 일을 몇년 동안 하였고, 저의 노후는 안전해요, 등등.”

(예수님) 너희들은 지금부터 10년은 고사하고 다음 주에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발전시킨 기술로 나의 왕국을 세우기위해 무엇을 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너희들이 성장시킨 것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일에 너희들을 사용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하도록.

(클레어) 저는 자연사진작가로서의 30년의 경력이 있지만, 제가 주님께 저의 삶을 바친 후에 주님께서는 제가 카메라를 가까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래, 왜냐하면 너가 카메라를 집어들 때마다 나는 세상의 냄새를 맡았고 나는 그 냄새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클레어) (박장대소하며) 그러실것 같았어요.

(예수님) 대신에 나는 너에게 음악과 가르침의 선물을 주었어.

(클레어) 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을 좋아해요.

(예수님) 나는 내 사랑을 위해 내가 너를 무엇으로 창조하였는지 알고, 나는 너가 이 일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너는 과거에서 완전히 죽을 각오가 되어있었어.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나에게 왔고 나는 너를 나의 뜻으로 채웠어. 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해. 나는 쉽게 잡히지 않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하지만 그 이익은 세상 밖의 것이야.

나는 나의 열망하는 신부들 모두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을 비우면 나는 내자신으로 너희들을 채울 거야.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거야.

이제 가서 그 대가를 깊이 고려해봐라. 나는 너희들의 결정을 듣기 위해 너희들의 옆에서 기다릴 거야. 너희들은 오직 요청만하면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도울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주었고,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었어.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꺼이 줄 거야?

(클레어) 이 메시지는 지금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심지어 천년기에도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것이예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주님의 평화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해요.. 아멘.